

SPECIAL REPORT 1

순항 중인 한국 수출의 호재와 불안 요인들

글 | 문병기 수석연구원(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미·중 무역 갈등과 유럽의 정정 불안, 미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신흥국 경기 불안 등 한국 수출이 극복해야 할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최근의 수출 성과는 어떠한지, 향후의 향방과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자. 더불어 무역·통상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한다.

1. 전반기 수출 상승세는 이어질 듯

1~7월 수출은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 IT 경기 호황, 국제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6.3% 상승했는데, 2017년 수출 증가율이 15.8%로 매우 좋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7년 수출과는 달리, 수출 물량 증가율이 단가 증가율을 앞서며 수출 증가의 60% 이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수출 물량 증가율은 주요국 대비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다. 금년 1~5월 한국의 수출 물량 증가율은 7.7%로 세계 평균(3.5%) 및 주요 선진국(미국 5.9%, 일본 4.8%, 유로존 3.0%)의 기록을 상회하면서 선전했다.

품목별로는 4차 산업 혁명 관련 신산업 등 고부가 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상반기 전기차,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첨단 신소재 등 8대 신산업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율(6.5%)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총 수출 중 8대 신산업 비중은 2014년 8.4%에서 금년 상반기 13.1%로 상승했다. 전통 주력 산업에서는 석유·석유 화학 제품, 일반 기계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자동차, 무선 통신 기기는 경쟁 심화 및 해외 생산 확대로, 선박은 수주 잔량 급감에 따라 수출이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미국과 EU는 소폭 상승, 중동은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수출입 실적

(단위: 억달러, 전년 동기비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1~7월 |
|---------|--------------|-------------|-------------|-------------|
| 수출(증가율) | 5,268(-8.0) | 4,954(-5.9) | 5,737(15.8) | 3,486(6.3) |
| 수입(증가율) | 4,365(-16.9) | 4,062(-6.9) | 4,785(17.8) | 3,102(13.7) |
| 무역수지 | 903 | 892 | 952 | 384 |
| 무역 규모 | 9,633 | 9,016 | 10,522 | 6,588 |

자료: 한국무역협회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 | 2017 | 2018(추정) | 2019(전망) |
|--------------|------|----------|----------|
| 세계 경제 | 3.7 | 3.9 | 3.9 |
| ↳ 선진국 | 2.4 | 2.4 | 2.2 |
| - 미국 | 2.3 | 2.9 | 2.7 |
| - 일본 | 1.7 | 1.0 | 0.9 |
| - 유로존 | 2.4 | 2.2 | 1.9 |
| ↳ 신흥 및 개도국 | 4.7 | 4.9 | 5.1 |
| - 중국 | 6.9 | 6.6 | 6.4 |
| - 인도 | 6.7 | 7.3 | 7.5 |

자료: IMF, World Economy Outlook(2018, 7월)

2. 우려되는 수출 하방 리스크들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는 소비 및 투자 회복, 고용 여건 개선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금년 세계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0.2%p 상승한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은 미국이 성장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유로존, 일본의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미국은 양호한 고용 시장과 확장적 재정 정책, 조세 개혁 효과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반면, 유로존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성장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협상 진행과 이탈리아 정치 불안 등에 따라 성장세 완화의 조짐도 존재한다. 일본은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소비 약화, 고령화 등이 성장세를 제약하는 양상이다.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신흥국(아르헨티나, 터키, 이란 등)을 중심으로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은 내수 주도 성장 모델 전환(제조업·투자 → 서비스업·소비)에 따라 소비 여력은 확대되나 무역 분쟁 등의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 인도의 경우가 두드러지는데, 인프라 투자 증가와 경제 개혁 안착에 힘입어 7.5%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세계 경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호전됨에 따라 금년 세계 무역도 전년 대비 4.4%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수입 물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가운데 특히 미국, EU, 일본 등을

최근 반도체 및 기타 품목 수출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비, %)

| 구분 | 2017 | | 2018. 1~7월 |
|--------------|-------------|-------|------------|
| | | 1~7 | |
| 총 수출(a) | 5,737(15.8) | 3,279 | 3,486(6.3) |
| -반도체(b) | 979(57.4) | 508 | 716(41.1) |
| -반도체 제외(a-b) | 4,758(9.8) | 2,771 | 2,770(0.0) |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심으로 선진국 수입 증가세가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2018년 한국의 연간 수출과 무역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국면에서도 불안한 변수들은 존재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 금융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아가 경기 둔화 및 디플레이 등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유로존의 통화 정책 정상화로 세계 금융 시장·환율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신흥 시장에 유입된 자금의 선진국 회귀 및 신흥국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한국은 한국대로 대미 수출액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자동차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7.1%에서 금년 상반기 20.6%로 수출 비중이 상승한 반도체 분야 역시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중국의 대규모 메모리 투자에 따른 생산 본격화와 기저효과 등으로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상반기 42.9%에서 하반기 16.6%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제 유가 역시 우려되는 요소다. 그동안 한국은 낮은 수준의 국제 유가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향상, 국내 소비 여력 향상, 수입 단가 하락에 의한 국제 수지 개선 같은 수혜를 누려 왔다. 그러나 한국 수출이 원유 의존형 구조로 바뀐에 따라 낮은 수준의 국제 유가가 드러내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원유 관련 수출 제품의 단가 하락, 산유국을 포함한 자원 부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한국 제품 수입 수요 저하를 들 수 있다. 최근 국제 유가 수준(배럴당 60~70달러대)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시리아와 이란 등 중동 국가들의 정정 불안과 미·중 통상 분쟁 따위의 변수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경우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및 가격 폭등이 기업의 생산비 부담 상승은 물론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 하락을 낳아 세계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통상 분쟁은 그 전개 양상에 따라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4.8%, 대미 수출 비중은 11.9%로 G2의 몫이 36.7%나 차지한다. 이에 따라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확대될 경우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큰 한국(78.9%), 대만(79.9%), 일본(60.9%) 등의 수출 피해가 예상된다. 미·중 무역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으나, 세계적인 제조업 공급 과잉, 자국 산업 육성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면서 보호 무역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외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에는 분명한 악재다.

3. 이제 벤치마킹과 혁신이 필요한 때

한국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2004년 6.2%로 일본(16.2%)에 비해 10%p 낮았으나, 2013년에는 18.3%로 그 격차(일본 22.9%)가 4.6%p까지 축소됐다. 특히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전, 휴대폰,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50% 이상으로 높은 현실. 이는 고임금, 노동 시장 경직성 등 국내 구조적 요인에 따라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이것이 도리어 한국 직수출 제품의 수입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한다.

반면 독일 제조 기업의 경우 노동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생산 기지 해외 이전(Offshoring)을 선택하는 추세는 줄어든 반면(해외 생산 비중 2006년 15% → 2012년 8%), 2006년 이후 매년 조사 기업의 2~3%가 본국 회귀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Fraunhofer ISI). 회귀(Reshoring) 선택의 이유는 독일 내 높은 노동 시장 유연성과 질적 수준, 잘 갖춰진 인프라에 있었다. 그들의 사례를 모범 삼아 한국도 국내 기업 환경 개선과 함께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비중 확대, 수출 강소 기업(직수출 1,000~1억 달러) 육성을 통한 수출 저변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야 한다. 한국은 중소기업 수출 활동 참여율이 2015년 2.6%로 경쟁국(독일 9.7%, 미국 5.2%)에 비해 낮으며,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수출 비중 60% 중반대)를 이루고 있다.

독일의 사례가 국내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큰 이유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있어 중소·중견 기업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과 같은 4차 산업 혁명 기술 적용 신산업 분야(로봇,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등)에서 기술력 중심의 작고 민첩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선전하고 있다. 8대 신산업 수출의 취업 유발 인원이 3년 연속 증가해 2017년에는 41.5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핵심 소재·부품 산업은 한번 경쟁력을 확보하면 장기간 시장 지배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띠므로 한층 더 중요성을 지닌다.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 인터넷·모바일·4차 산업 혁명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기술 창업이 쉬워지고 재투자·재도전이 용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생계형 창업이 아닌 본 글로벌 스타트업(Born global start-up) 창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업 공개(IPO) 이전에 투자금의 중간 회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M&A를 포함한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초기 창업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엔젤 투자를 확대해 창업→성장→안정으로 이어지는 단계별로 기업의 자금 확보가 용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동시에 스타트업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